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추모식  
서거 79주기

## 추 모 사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금년은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이자 선생께서 서거하신 지 79주년 되는 해입니다. 선생님은 1890년 5월 8일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셔서 55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짧은 생을 사시면서 한국 근대사, 특히 항일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의 역사적 단계마다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그분이 남긴 업적을 회고하고 추모하고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선생님의 유택 앞에 모였습니다.

고하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열들의 덕택으로 다시 독립을 되찾은 이 나라는 경제, 문화,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안보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다른 우방과 연대하여 세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선생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셨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귀한 선생님의 일생은 오늘 같은 추모식 이외에도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거인의 숨결”이란 글 모음집을 통해 선생님의 업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을 통해 고하 선생께서 3·1운동을 기획·조직하고, 실행했던 내용이나,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에서 민족진영을 통합하고 공산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신 부분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목 수석비서관을 보내셔서 추모사를 대독 하게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하 선생님을 일제강점기에 근대사를 이끌어 간 선각자요, 민족의 지도자라 하였고, 해방 후 혼란한 정국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 했습니다.

한편,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은 해외 무장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과 교육·문화활동을 통한 독립운동도 고르게 다루어

저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참으로 독립운동의 지평을 넓히신 옳은 지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정부도 없던 일제 식민시절, 동아일보를 짚어지고 일반 시민교육과 각종 문화·과학교육 활동을 통해 이천만 조선 민중의 의식을 진작하신 고하 선생의 업적을 우리는 먼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하 선생께서 언론과 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신 발자취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초석을 쌓으신 고인의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창 식